

[목회자 모임-요한복음]
5.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2019. 5. 24. 이현래 목사

세상을 바르게 하고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사람들이 인간의 스승들이다. 그것도 지역마다 문화권마다 생각이 다르다. 중국 사람들은 신이 없으니까 일신(一身)주의, 몸밖에 없다. 인간의 스승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침이 생겼다. 그런데 똑같지가 않고 문화권마다 인종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

중국 사람들은 신이 없으니 일신주의로 사람뿐이다.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을 잘 단련하고 수양하는 도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살려면 도덕이 필요하여 윤리 도덕이 나오게 되었다. 노자는 도교의 스승이고 공자, 맹자는 유교의 스승이다. 이 둘이 합해진 것이 소위 지금 중국사상이다. 중국에 가면 그것이 꼭 차있다. 윤리 도덕이 꼭 차있고, 사사삼경이 전부 윤리 도덕이다. 왕은 어떻게 왕이 되는가? 어떻게 참다운 왕이 될 것인가? 이런 공부를 한다.

인도 사람들은 다신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과 사상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거기서 실재는 무엇인가? 진짜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석가모니이다. 이것저것 다 헤치고 보니까 이것도 허상이고, 저것도 허상이고 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실재하는 것은 없다. 사람 생각 속에 있는 마음뿐이지 실재는 없다는 것이 불교 사상이다. 그래서 참 실재를 찾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거기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면 해탈이 되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찾았다하면 성불이 되는 것이다.

희랍 세계는 역시 아리안 족이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세계이다. 선과 악, 하늘과 땅, 이런 식이다. 그런 세계 속에 기독교가 들어갔다. 기독교는 원래 유대교일 때 일원론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다. 희랍세계에 들어가니까 이원론이 있다. 이원론과 부딪혀서 묘하게도 기독교는 삼원론이 되고 말았다.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삼위일체론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재미있는 것이 북한은 주체사상이다. 그것이 왜 생겼는가? 처음에는 소련이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는데,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과 둘로 갈라졌다. 북한은 중국도 가까이니까 무시할 수 없고, 소련도 무시할 수 없어서 중간에 헤매다 우리는 우리 식으로 살자고 해서 나온 것이 김일성 주체사상이다. 이 김일성 주체사상은 삼원론과 비슷하게 되었다.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고 김일성이 있다. 사상도 조금씩 다르다. 소련식 공산주의가 다르고, 중국식 공산주의가 다르고, 김일성식 공산주의가 다르다. 삼원론이 되었다.

기독교는 희랍 세계에 들어가서 일원론적인 세계에서 이원론적인 세계로 들어가니까 합해서 수용하려니까 삼원론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한분이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다, 그래서 삼원론이 된 것 같다. 이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내 생각이다.

지금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알고 보면 삼원론이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혼란이 생겨서 아버지는 누구이고, 아들은 누구이고, 성령은 누구냐는 문제가 논쟁거리가 된다. 그 결과로 삼위일체론이 나오게 되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삼원론이고, 어떻게 하면 이원론인 그런 형태이다. 교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예수는 무엇인가? 예수는 일원론 세계에서 나오신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분이니까 마지막에 가면 아버지이다. 우리가 이 세대에 예수를 전하려면 이런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수가 지금 실제로 전해지기는 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해서 예수가 하나님 같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아니라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형편이다. 완전히 통일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나 예수님 믿는 것이나 다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아는 것이 별 문제가 없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신학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왜 그런가? 그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얼굴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그것이 너무 분명했다. 그래서 확신이 있었는데 ‘예수는 누구인가?’ 이 문제가 생겼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이 문제가 얼른 소화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특별히 예수 아니면 안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3:16) 이 말을 나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은 모르겠다.

그때로 본다면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신앙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공부 해보니까 예수님 없이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말이 또 안 된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다.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주었다는데, 도저히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인류의 죄가 사해졌는가? 이것을 알지 못했고 더군다나 나한테는 나를 위해서 죽을 일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할 일이 없었다. 참 답답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했는가?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벽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는 장면을 크게 그려 놓았다. 집회 첫날은 언제든지 회개하는 날이다. 그날 강사가 그것을 가리키면서 보라. 우리 죄를 위해서 저렇게 피를 흘렸다고 하면 막 대성통곡을 한다.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한다. 옆에서 똑같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나는 참 민망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통곡을 할 수 있는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럴 수가 있는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중죄인도 아니고, 사람 죽이고 온 사람도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애통하고 자복하는데 나는 안 되는가? 그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근본이 안 되는데, 아예 그 부흥회에 인문이 안 되고 다음 말씀은 들어나마나였다. 그래서 부흥회를 일주일 동안 참석하고 와도 아무것도 안 된다.

하다가하다가 안되니까 그래도 나는 얼굴 없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문제는 접어놓고 말씀도 하고 했던 것 같다. 한 교회에서 8년간 목회를 하고 C,C,C.에 와서 한 2년간 말씀을 전했는데, 그 문제는 덮어놓고 했다. 내가 까놓고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내 경험이 없으니까 그것을 까놓고 말을 할 수가 없다. 나에게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 내가 만일 목회자가 안 되었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고민이 안 될 수도 있다. 평신도일 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문제될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막상 설교를 하려니까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이 해당이 안 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원죄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내가 신세질 일이 없다. 그분의 공로로 내가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안 된다. 여러분도 생각해봐라. 답답한 일이 아니겠는가? 목회할 사람이 이것이 안 되니 답답할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안 되는 것은 접어놓는 스타일이다. 막 파고들지 못하고 안 되는 것은 덮어 놓는 성질이다. 지금 안 되는 것은 덮어놓고 보자. 시험 보듯이 그렇다. 시험 보러 가면 모르는 것은 덮어 놓고 아는 것부터 보자. 아는 것만 가지고도 할 말이 많다.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할 말이 많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려고 책을 샀는데, 책이 두껍고 한 페이지를 보니까 이것을 언제 다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책도 못 읽는 사람이 이런 책을 읽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어서 에라 모르겠다, 가서 한번 부딪혀 보자하고 갔다.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꽤 많았다. 아는 것만 적고 나오니까 30분도 안 걸린다. 다른 사람들은 한참 풀고 있는데, 나는 풀 일이 없다. 그냥 나오기 민망해서 다시 한 번 훑어봤는데, 그래도 새롭게 더 본다고 알아지는 것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왔다. 그런데 다행히 점수가 63점이면 합격할 때이기 때문에 합격했다.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보았는데 63점에 합격했다. 그때 2종 보통면허 시험은 60점이 합격이다. 하여간 나는 그것을 밤새워서 하면 잠도 못자고 내 몸이 못 견디니까 안 되는 것은 접어놓아야 한다.

예수 문제도 그랬던 것 같다. 해결이 된 것이 아니고, 생각해봐야 대책이 없으니까 덮어 두었다. 성경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엡1:7)는 것은 기독교의 상식이다. 너무 평범한 상식이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다.

그런데 신약을 보면서 말씀을 했는데, 예수를 신약에서 접하니까 아주 다른 분이 다. 나와 다른 분이 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다른 분이 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내 인생에 의미를 준다.

예를 들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면 나는 어

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예수는 사람의 무엇을 바꿔주는구나.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아주 좋았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니까 그렇지, 예수는 소경된 우리를 눈을 뜨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해석했다. 그 사건 자체보다도 사건 자체는 어차피 모르니까 어떻게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했는데 나면서 소경된 눈이 떠졌는지를 모른다. 어떻게 알겠는가?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아예 처음부터 눈이 없었던지 있기는 있는데, 시력이 없었을 것인데 이렇든 저렇든 하여간 진흙을 눈에 발라서 눈이 떠졌다는 것이 우리는 도저히 모르는 일이다.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랬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눈을 뜨게 해준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너 진짜냐? 너 확실하게 말해봐라. 유사 이래로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도움이 되었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모른다. 어떻게 해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고도 남았는지를 모른다. 그렇다고 무조건 믿어지는가?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안 믿어지는가?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취할 것만 취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라고 하면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구나. 이분에게 가면 주리고 목마른 것이 없어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설교는 할 말이 많았다. 얼마든지 할 말이 있다. 그런데 내 속에서 100% 소화된 것은 아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다른 소망이 있었다. 메시아 소망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능력이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을 따라다녔다. 나는 그것은 아니지만 내 방식대로 해석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이다.

마지막에 겐세마네 동산으로 가니까 제자들은 황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메시아로서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한심하겠는가? 그래서 잠을 잤다. 3번이나 와도 잠을 잤다고 했다. 진짜로 피곤해서 잤겠는가? 참여가 안 되니까 잠이 온 것이다.

그것마저도 기대할 것이 있었는데, 가야바 법정에서 가니까 더 엉망인 말이 나왔다.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막14:61)고 하니까 그 모습을 하고

그렇다고 대답을 한다. 그 모습을 해서 대답하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는가? 베드로가 결국 보다보다 안 되어서 나온 것이다. 베드로는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할 수 없이 그냥 나온다. 옆에 사람이 문기를 저 사람의 제자냐고 물으니깐 맹세하고 아니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엇그제까지 내가 안 것 같았던 사람인데, 거기 와서 보니까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골고다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제자들은 어느 정도 기대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자기 목숨들을 걸고 따라온 사람들인데, 쉽게 포기하겠는가? 거기 가서 끝까지 지켜봤지만 살아날 기미가 없고 마지막에 결국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 하고 죽었다.

그것을 믿고 메시아라고 믿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모두 고기 잡으러 간 것이다. 그때 그들은 자기 인생이 끝난 것이다. 어부로서의 일생을 살고 있을 때,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한참동안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예수님이 떨어지는 바람에 자기들도 같이 떨어져 죽은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도 그것이 못 박힌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또 찾아왔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이 생겼다. 이런 것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는 사건이다. 어떻게 방에 문을 열지 않았는데 들어왔는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가면서도 왜 몰랐는가?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우리가 잘 상상할 수가 없다. 내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만나듯이 만난 것이 아니다. 또 더군다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우리가 구름을 타본 일이 있는가? 타고 올라간 사람을 본 일이 있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다.

잘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다. 시간이 오래가서 우리가 잘 믿고 있는지 알지만 실제로 부딪혀보면 전혀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모르는 일이다. 그 후에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믿음과 오늘날 사람들의 믿음하고는 꼭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사람들은 생생하게 죽은 경험

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생하게 죽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걸발림, 걸핍기나 마찬가지로이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아라비아나 어디에 가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계시를 받았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경위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바울의 말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를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를 찾아내기 어렵다.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다.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말이 없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만났던 것을 우리가 모르듯이 바울이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체험이 날 때, 이것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책으로 봐서 교리로 배워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경험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딱 달라붙지 않았다.

로마서 전반부를 읽을 때,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의로울 수 없다.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 말까지 좋았다. 내 경험으로 보서는 내가 인정받는 것이지 내가 예수 때문에 새로워진 것도 아니고 의로워진 것도 아니다.

거기까지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갈2:20)라는 말이 나온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넘어간 것 같다. 나도 사실 넘어갔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대단히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니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니 모르겠다. 왜 그러므로 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 같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2)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나를 해방하였는가? 여러분 생각해보았는가? 나도 너무 좋아서 생각 없이 믿었다. 그렇게 해결된다면 얼마나 쉽고도 간단한 일인가? 우리가 인간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그냥 대충 아는 것만 알았던 것 같다. 대충 대충 넘어간 것 같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분에 대해서 평생, 평생을 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평생을 알아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늘 새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미국 사람 선교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생각한다. 내 소문을 들었는지李목사님은 무엇이 다른 사람과 다르냐고 물었다.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다 아는 예수를 뭘 알아 가느냐고 물었다. 그분만 그렇게 이야기하겠는가? 그 사람은 4대째 한국에 와 있는 사람이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이다. 서양 세계에서는 예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다 배워서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조르르 대답할 수 있도록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접촉해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 내 경험에서는 전에 알던 사람과 또 다르고, 전에 알던 사람과 또 다르고, 늘 그렇게 달라졌다. 경험이다. 그분이 변한 것이 아니지만 내 경험이 바뀌지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교회에 없다고 할 수 없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나만 유별나게 이런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그런가? 나만 유별나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요1:4,5)고 했다. 빛이 어둠에 비취되 어둠이 이해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빛이 왔는데 빛을 소화하지 못한다. 못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가 생명의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 못 받아들이겠는가? 이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 같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창1:3) 그런데 그 빛이 있으라 한 후에 창조가 시작된다. 창조는 그 빛 안에서 우리에게 소개된 것이지 그전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안 것과 다르다.

주일학교 때부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라고 찬양했다. 그것은 자연을 보고 그런 노래가 나온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거기서 창조론이 나오고, 진화론이 나왔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창조론의 과제도 아니고, 진화론의 과제도 아니다. 그 빛이 있어야 보는 세계이다. 이 빛이 없으면 안 보인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다른 빛으로 보는 것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창세기 이야기를 주일학교 다니면서부터 듣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참 아름다워라~’ 이것밖에 안 된다.

내가 결정적으로 회심을 했던 때는 그것이 갑자기 나에게 나를 지으신 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참 아름다워라’와는 다른 것 같다. 그 세계와 다르고, 나와 관계가 된다. 나를 지으신 이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냥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내가 그 빛 가운데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복잡한 머릿속이 싹 정리가 되었다. 그날 이후로 몇 년 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싹 사라졌다. 신기한 일이다. 밤을 새워 토론을 해도 답이 안 나왔던 문제가 어떻게 싹 사라져버렸다. 어떤 빛이 온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빛 가운데서 그런 것이지 내 생각이 돌아갔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을 볼 때 성경에 쓰여 있는 계시는 빛이 없으면 못 본다고 할 수 있다. 그 빛이 없으면 못 본다. 이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말이다. 태양이 비쳤는데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달이 비쳤는데도 아는데, 태양이 비쳤는데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다 아는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전혀 몰랐던 세계이다.

원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을 한다. 사람은 죄인이다. 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슨 죄가 있느냐? 관계적인 문제인데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이 죄라고 생각한다. 불순종은 순종하면 된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롬7:21)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원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다. 옛날에 이런 것을 경험을 했다. 나대로는 회개도 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것이 내 속에 거하

는 죄라고 생각했다.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을 모른 것이다. 성경에 있으니까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받아들이는 것이지 모르는 것이다. 안 먹어봤으니 알겠는가? 얼마나 좋은 과일이기예 하나님께서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먹었겠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해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는 것이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이런 경험이 없다.

그런데 혹시 계명으로 그런 계명을 받았는데 못 지킬 수는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다. 왜 그것을 먹었을까?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는데, 왜 먹었을까? 이것이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못 지킬 법이 하나도 없다.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은 지킬 수 없는 것은 없다. 다 상식적인 것이다. 법은 상식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는 일이다. 왜냐하면 동산에 살아본 경험이 없다.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은 경험이 없다. 또 그 과일을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창 3:6) 그래서 먹었다는 것도 경험이 없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나는 선악과를 안 먹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다고 한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것도 믿었지만 전가되었다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에게 전가되는가? 또 어떤 것이 전가인가? 이런 것이 애매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해봐야 모르니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아담의 죄가 왜 나에게 전가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발이 멈춰져 버린다.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끝나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한다. 전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무슨 유혹을 받았는가? 이것도 무슨 유혹을 받았기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냐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된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참고 이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죽는다. 이것은 감당하기 어렵다. 어쩔 수 없이 죽는다. 물론 어차피 사람은 죽는 것이니까 자포자기한다. 죽는 것이라고 하지만 만일에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

해보라. 안 죽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이*철씨도 죽기 전에 인생에 대한 회의를 적어서 어느 신부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이*철씨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삼*과 바꾸자고 하면 바꾸겠는가? 안 바꾸겠는가? 나는 못 바꾸겠다. 죽으면 죽었지 내 평생의 사업인데 포기할 수는 없다. 죽지 않고 산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가? 한 50년만 더 산다거나 100년을 더 산다면 하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롬3:23) 하는 그 모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아닌가? 아무도 예외가 없다. 내가 순종을 바치기 위해서 순교는 할지 모르지만 내가 인간의 어떤 제한성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만일 해결이 된다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지금 나도 그렇다. 만일 내가 안 죽고 산다면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도 버릴 것 같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과 바꾸겠느냐고 하면 안 한다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어떤가? 양심대로 생각해봐라.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 죽어버린다면 내가 무엇을 가져도 소용이 없고, 힘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린다.

이번에 신교수가 미국에 가서 글을 써 올렸다. 딸이 돈을 얼마를 주어서 쇼핑을 했는데 가보니까 살 것이 없다는 것이다. 늙으면 살 것이 없다. 쓸 데가 없다. 내가 아는 노인이 그때 90세가 넘었는데 힘이 장사이다. 생기기도 장사처럼 생겼다. 일제 강점기에 지금의 심양인 봉천에서 대구까지 40일에 걸쳐서 걸어왔다는 그런 사람이다. 그 전에 가면 항상 집 앞에 소주병이 있다. 늘 그것을 좋아했다. 내가 갈 때마다 정종을 한 병씩 사다 드리곤 했다. 언제 한 번 가니까 아들들은 많아서 다섯이고 손자들도 많다. 그래서 영감님은 좋으시겠다고 했더니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이다. 용돈도 주지 않느냐고 하니까 용돈은 쓸 데가 없다는 것이다. 나이가 많아지면 술도 못 먹는다.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진다.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진다.

인생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면 정말 허망한 것이 인생이다. 쓰신다는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이 귀하다.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면 개, 돼지나 마찬가지로이다. 다른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빛이 와서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다. 다른 빛으로 다른 세계를 보

고 있는 것이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주)을 보리이다.”**(시36:9) 그분의 빛으로 그분을 본다는 말이다.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그분을 알면 또 더 알고, 또 더 알아지고 자꾸 그 빛이 증가된다.

빛이 왔으되 세상이 빛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 빛이 어떻게 갑자기 오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겠는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빛을 준다면 간단하다.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고 빛을 주면 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일을 못하시는가? 왜 못하실까? 성령을 주면 되는 데 왜 못하실까? 성령 충만으로 다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 성령 충만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푸짐하게 주지 왜 못 주시는가? 마찬가지로 빛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되지 않은가?

이 빛이 그냥 하늘에서 비치는 그런 빛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 비춰오는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만큼 그 세계가 비춰지는 것 같다. 그래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주)을 보리이다.”**(시36:9)라고 했다.

마지막에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기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분으로 알았으니까 그런 분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인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나와 전혀 다른 분이 나에게 빛을 비춰줘서 내가 따라간다. 이것은 남의 등불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을 뒤쫓아 가기도 참 어렵다. 어두운 밤에 피란을 가면서 바닷가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는 다 어른들이고 나만 학생이었다.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었다. 몇 시간 걸었지 싶다. 길을 모르니까 놓치면 큰일 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려울 것이 없다.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빛이 된다면, 나와 연합된 자가 빛이 된다면, 어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가 없으면 나는 여전히 구약 세계에 해당된다. 밖에 있는 빛으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 세계와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주관적인 체험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이상한 데로 빠진다.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는데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아주 객

관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 내리지 못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것은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 사실 안에 내가 그대로 들어 있다. 다른데 있지 않고 그 안에 내가 있다.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다. 어떻게 쳐다보면 사는가?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와서 해결되더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그냥 놓아 두셨을까? 그냥 보라고 놓아두셨는가? 그 모습을 안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보게끔 놓아두셨는가? 뱀 뱀을 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아닌가? 뱀 뱀을 봐야 우리는 알게 없었다.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그 안에 내 운명이 들어 있다. 나도 꼭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위치가 회복되면 다른 세상이 있다. 위치가 회복되면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세상에 사는 것도 그렇다. 내 위치에 따라 사물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은 창가에 앉으면 나는 안에서 얼굴이 잘 안 보인다. 빛이 다르니까 같이 한 방에 있는데도 그늘이 쳐서 시커멓게 보인다.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앉는 분들을 보고 다른 쪽으로 앉으라고 하는 이유가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위치가 달라지면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는 세상에 살면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인다. 내 운명이 예수 안에 있다고 알고 보면 다른 것이 보인다. 다른 빛이 보인다. 이 빛은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내가 피조물이라고 아는 것도 빛을 아는 것이다. 내가 인생이라고 아는 것도 이 빛 안에서 아는 것이다. 내 운명을 아는 것도 이 빛 안에서 아는 것이다. 사람은 원래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인데, 이것을 아는 빛과 예수 안에 있는 죽음과는 다르다.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를 그 빛 가운데서 불렀으니 까 그 빛 가운데서 살아야 그분이 가는 길이 보이고, 우리 앞에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 이삭이 가는 길, 야곱이 가는 길은 다 한 길이다. 다 한 길인데 이 빛 가운데서 보는 길이다. 그냥 보면 그 사람들은 역사에 불과하다.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과 야곱의 역사이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가? 다른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 된 것은 이 빛 가운데서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알게 된 것이다.

내가 처음 그분들을 대하게 되었을 때, 전에 다 알던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삭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다 알던 사람들인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세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그냥 한 사람이 갈데아우르에서 우상을 벗어나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렇게만 알았지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따라 어떤 경로로 와서 이삭을 낳고 갔다는 것은 전혀 모르던 바였다.

그런데 그분을 소개한 사람이 그 다른 길을 자기가 환하게 보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래서 100살이 된 후에 이삭을 얻었다. 복이 된 것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다. 100살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들어도 말이 안 되고, 사라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말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부름 받았구나. 거기서 부름 받았구나. 내가 100살 전에 부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100살을 지나서야 부름을 받았다. 똑같다.

나는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100살 후에 이삭을 낳았다.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안 되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상하게 안 되었다.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했다. 잘하다가도 왜 이걸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나를 이끄신 분께서 다른 빛 가운데로 안 보내시려고 그랬던 것 같다. 너는 이 빛 가운데서 살아라. 이렇게 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은 다 실패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주의 손에 이끌려』 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썼다.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은 다 실패했는데, 전혀 나와 관계가 없는 다른 데서 일어난 일을 그냥 놓아 둘 수가 없어서 썼다. 그 이상한 일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은가? 그 길에서 보이게 된 것이 지금 예수께로 온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말이 써 있다. 그런데 예수께로 오는 길은 단순하다. 아브라함 안에서 왔다. 100살이 되도록 아무 것도 안 되던 아브라함이 가던 길이다. 그 길에서 왔다. 아브라함과 예수가 다를 바가 없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요8:58)고 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선재성이니 하는 문제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그 길에 계셨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바벨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길에 있었다. 다른 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했다. 유대인들은 그럴 수가 있느냐 했다. “네가 아직 오십 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요8:58)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다, 먼저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바로 우리의 말이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다르게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어떻게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예수께로 오고 보면 아브라함이나 예수가 한 사람이고, 이삭과 예수가 한 사람이고, 다 한 길로 왔다. 다른 노선이다. 길 자체가 다른 노선이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세상 앞에 전파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의 길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미 바벨로 가는 길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된다.

기독교가 바벨로 가는 길에 합류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 보려니까 혼란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전혀 길이 다르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과 아담이 가는 길은 길이 전혀 다르다. 아담 안에는 아브라함의 길, 이삭의 길이 없다. 그것이 있을 수 없는 길이다. 잘못 생각하면 그것이 신앙의 외고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길이 전혀 다르다.

날짐승의 세계와 물고기의 세계가 전혀 다르듯이 세계가 전혀 다르지 않은가?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뭘 주어야 산다. 같은 세계에서 뭘 주려고 해 보면 줄 것이 없다. 주어도 되지 않는다. 이전투구다. 서로 시궁창에서 비벼대는 것이지 해결이 되겠는가? 희랍철학과 뒤범벅이 되어 가고 있는데, 철학이 답을 준다면 무엇 때문에 신학을 하겠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세상이 볼 때는 비참한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 창조의 세계가 보이고, 그 안에 아브라함의 세계가, 이삭과 야곱의 세계가, 그 안에 있다.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죽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미결이다. 답이 안 오고 미결이다. 아브라함의 독특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상태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우리가 하나라는 말이다. 이 사람을 기다렸던 것이다. 메시아는 이 사람이 메시아인데 아담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실망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던 바가 없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지만 우리도 속에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제 다른 메시아, 다른 길에서 오신 메시아, 우리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온 메시아가 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해결책이 있다.

가뭄으로 땅이 말라 비틀어 졌는데, 양수기를 가지고 아무리 물을 퍼도 안 되었다. 옛날에는 양수기가 있었는가? 그냥 바가지로 가지고 물을 하루 종일 찼는데도 다음 날 가보면 말라 있다. 오죽하면 물 때문에 싸워서 사람을 죽이고 하겠는가? 그것은 사람을 애타게 하는 일이다. 논바닥이 말라 들어가면 농부들은 정말 자기 가슴이 타는 것처럼 아프다. 그것을 요즘에는 양수기가 있어서 막 퍼댄다. 좀 낫지만 그래도 가물면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데 비가 한 번 와 버리면 금새 다 해결되어 버린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하늘로부터 소식이 와야 해결되지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해 봤자 해결이 안 된다. 우리가 누구의 문제를 돕는다고 하더라도 하늘의 문제를 주어서 해결해야지 땅의 문제를 주어서 해결하는 것은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안 되고 또 문제가 나오고 또 문제가 나온다. 다 이유가 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쌍방이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 해결이 되겠는가? 네가 이래서 내가 이렇다는데 해결이 되겠는가? 너 아니었으면 나는 안 했을 텐데, 너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해결이 되겠는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거든 화해를 하려거든 무조건 엎드려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제시하면 일이 더 커져 버린다. 안 한 것만 못하다. 화해를 원하거든 무조건 엎드려야 된다. 내가 잘한 점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지만 무조건 엎드려서 빌어야 된다. 그래야 화해가 되지 둘이서 손익 계산을 해서는 화해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도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다. 우리도 다 이유가 있다.

아담도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나를 왜 이렇게 제한 속에 만들어 놓았습니까? 안 그랬으면 내가 선악과를 안 먹어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려고 그랬다고 하면 아담이 ‘감사합니다. 참 은혜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는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제한 속에 넣어 놓았습니까?’ 하지 않겠는가?

사탄이 끝까지 공격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마4:6)고 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것이다. 사람인가? 천사인가? 이 싸움이다. 지상전인가? 공중전인가? 마찬가지로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4:3)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마4:6) 하나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 내려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여기서 확립이 안 되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다고 잘못 생각하다가는 오히려 말려 들어가서 잡혀 먹히게 마련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겠는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4:4)고 했다. 그래서 넘어갔다. 넘어 갔는데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되었으면 십자가를 무엇 때문에 지겠는가?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물어 본 것이 아니겠는가? 더 어려운 문제를 내 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마4:6)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거기서 인간의 위치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종이 되는 것이다.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안 된다.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갈 길은 예수와 연합하는 길밖에 없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 그 안에 있으면 죄가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죄를 묻겠는가?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겠는가? 그것은 세상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옛날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법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사한다고 해 사해지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내가 너만 사랑한다거나 사랑했다

거나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다거나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없는 것이다.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1:14)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사람을 원위로 회복하는 일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일은 그 위치에서 예수와 연합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뭘 해도 똥 누고 뒤를 닦지 않은 것처럼 그렇다. 해결이 안 된다.

알고 보면 늘 해도 같은 말이다. 나도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지 않으면 해답이 없기 때문이다. 이 빛 안에서 내가 죄도 알게 되고, 위치도 알게 된다. 죄도 이 빛 안에서 아는 것이지 그 전에 아는 것은 내 양심의 죄다. 이 빛이 없으면 가인과 아벨의 노선으로 가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무슨 수로 나오겠는가? 부르시니까 나온 것이다.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이것을 제대로 놓고 써야 한다. 제대로 안 놓으면 쓰실 수가 없다. 아브라함을 100세까지 놓아두는 것을 보라. 안 그래도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겠는가? 거기 가서 이삭을 낳아야 하나님이 주신 진짜를 알지 그 이전에는 모른단 말이다.

나는 처음에 한 번 병들었다가 나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는 생각을 못 해보았다. 몇 년이나 그 생각을 못해 보았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망하게 했던 것 같다. 만일 그때 확실히 알았더라면 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전에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 보지 않았다.

교회는 오래 다녔다. 남이 말해줘서 알았다. 그때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다시 주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라면 다음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다음 고생을 하고, 또 다음 고생을 해서 마지막에 손을 들 때까지 간 것이 아니겠는가?

그때는 이미 오도 가도 못하고 누가 불러도 나갔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불렀어도 거기만 떠나게 해 준다면 갔을 것이다. 거기만 떠나게 된다면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다. 그래서 떠나기 하루를 앞두고서도 얼마나 조마조마 했는지 모른다. 그날 배를 타고 나오는데, 배가 선 창에 줄이 매여 있으니까 그것도 안심이 안 되었다. 그것이 풀어지고 배가 떠나니까 그때야 마음의 안도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갑판으로 올라갔다. 올라가서 나온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 전까지는 못나오겠더라. 꼭 누가 뒤에 쫓아오는 것 같았다. 안 쫓아와도 쫓아오는 것 같았다. 나를 그냥 불러만 주었어도 같 것인데, 사탄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큰 축복이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다. 길이 있어야 갈 수 있고,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다. 예수가 내 빛이 된다는 말은 이런 뜻이다. ‘주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한다고 빛이 어디서 오겠는가?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 그냥 얼굴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주님 내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러한다고 빛이 어디서 오겠는가?

창조의 세계를 보는 것도 빛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도 길이 있어야 되고, 이 길과 이 빛이 있어야 우리가 갈 곳으로 갈 수 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일은 당연한 일이다. 세상이 거부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요8:58)고 하는데,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받아들인다.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감사합니다.